

알리는 말씀

- 매주일 창세기를 강해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묵상 중 깨달은 바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더 풍성한 창세기 나눔이 되겠습니다.
- 새로운 처소(다음학교, 서울 서초구 마방로6길 37)는 11월 14일경에 계약하고, 공사를 거친 후 12월 25일 성탄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중보기도
 - *후원아동
 - 부상윤(남,11세),전보나(여.10세),도노을(여.8세),최유림(여,8세)
 -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 움오름 가족
 - *<왕혜진 초청연주회>: 11월8일(화)pm7시, 판교 코팩스아트홀
 - *쿠퍼아트: <마티네 콘서트> 11월15일(화) am11시, 성음아트센터

다음 주일(11/13 주일) 봉사위원

예배인도	기도	봉헌	생명의 식탁	meditation연주
송병춘	윤재선	조경숙	·	양재웅, 한혜리, 왕혜진

지난 주일(10/30) 예배통계

현금	
주일헌금	50,000원
감사헌금	200,000원
십일조헌금	100,000원
온라인	5,200,000원
합계	5,550,000원

우리은행
1005-003-406575
움오름교회

창립 2015년 3월 14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6-17, 3층 (양재동313-7번지)
홈페이지 www.woomorum.or.kr

2022년 11월 6일
성탄주일
8권 44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움오름교회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성찬 주일예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김영언

- * 부름의 말씀 시 145:1-5 인도자
- * 성령임재기원 인도자
- * 찬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여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여 주

- * 성찬기도 다같이
- 하나님~
 슬픔이 서리처럼 내려앉은 11월입니다. 길은 먼데, 해는 서산에 걸려
 날은 저뭉니다.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가기엔 너무 와버린 아깝고
 도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가슴 말바닥까지 타고 내려간 눈물자국을
 안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갑니다.

떠나는 것과 남는 것이 묘하게 교차하는 계절에 떠난 이들을 위해 남
 은 이들이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더 이상 무수한 젊은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한 채 저버리는
 일은 없기를 구합니다.

가을인 듯, 겨울인 듯한 계절에 예고없이 떠안은 깊이 베인 상처를
 보듬어 주옵소서. 고귀한 주님의 몸과 피로 덮어주고, 씻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빈몸으로 추위 앞에 서는 나목처럼 애절한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찬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 * 결단찬양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 * 축도 유경호
- Meditation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같이
 (*바이올린: 한혜리 *첼로: 왕혜진 *피아노: 양재웅)
- 환영과 알림 인도자

<우릴 사용하소서~>

우 리 에 겐 소 원 이 _ 하 나 있 네 주 님 다 시 오 _ 실 _ 그 날 까
 지 우 리 가 스 메 _ 새 긴 주 의 십 자 가 _ 사 랑 나 의
 교 회 를 _ 사 랑 케 _ 하 네 주 의 교 회 를 향 한 _ 우 리 마
 음 희 생 과 포 기 _ 와 가 난 과 고 _ 난 _ 하 물
 며 죽 음 조 _ 차 _ 우 리 막 을 수 없 네 우 리 교 회 는 _ 이 땅 의 _ 희
 망 교 회 를 교 회 되 _ 게 _ 예 뵈 예 배 되 _ 게 _
 우 리 사용 하 _ 소 _ 서 진 정 한 부 흥 의 날 _ 오 늘 임 하 도 _ 록 _
 우 리 사용 하 _ 소 _ 서 _ 성 령 안 _ 에 예 배 하 리 라 _
 자 유 의 _ 마 음 으 로 사 랑 으 로 사 역 하 리 라 _
 교 회 는 _ 생 명 이 니 _ 교 회 를

우 리 는 예 수 를 바 라 보 니 다
우 리 의 주 님 을 바 라 보 니 다

분산 후 기도 집례자
< 잔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 마신 잔은 왼쪽으로 전달했다 테이블 위에 두시면 됩니다.

나눔찬양 ‘두려워 말라’ 다같이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께서니 아쉬움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안에서

* 예물봉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나 받은 귀한 선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 봉헌기도 인도자

*봉헌: 김재란

주 의 손 에 오 늘 도 내 영 혼 을
내 영 혼 을 말 기 나 이 다

인도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앞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자행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회 중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짐을 나간 뒤 돌아올 때까지 마음 놓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루한 거리, 각자가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비정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녀를 안고 통곡하는 어미들이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른 척 했던 우리의 무관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지 못한 안일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침묵기도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

인도자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사 54:8, 겔 18:21)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주 의 손 에 오 늘 도 내 영 혼 을
내 영 혼 을 말 기 나 이 다

- * 찬송 찬 407장 다같이
- 기도 김윤빈
- 송영 ‘우리 기도 들으소서’ 다같이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멘
- * 성경봉독 창 16:1-16 인도자
- * 송영 ‘주의 말씀은’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 말씀선포 ... 창세기16-‘아브라함과 하갈’ ... 유경호
- 기도 설교자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 * 성찬으로 초대 집례자
- 집례자 이 식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초대이며,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사귄입니다.



오 소 서 성 령 이 여 사 랑의 길 로 인 도 하 소 서
오 소 서 성 령 이 여 우 리 에 게 오 소 서

- * 성만찬 참여 다같이

분병집례 주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바 나의 몸, 곧 언약의 몸이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몸된 떡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 리 는 예 수 를 바 라 보 니 다
우 리 의 주 님 을 바 라 보 니 다

- 분병 후 기도 집례자
- < 떡을 받으신 후 집례자 기도 후 함께 드십니다. >

분잔집례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피된 잔 받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